



젊은피 마운드 활약이 KIA 성적표 바꾼다

한승혁·문경찬·김운동 등 92·93라인에 투수 대거 포진 살아난 타격에 선발·불펜서 힘 받쳐줘야 가을 야구 희망

KIA 타이거즈 마운드의 92·93라인이 '가을 성적표'를 바꾼다. KIA는 '타고투저'로 표현할 수 있다. 지난해 우승 동력이자 최근 상승세의 중심은 바로 뜨거운 타격이다. 반대로 마운드는 몇 년간 속제를 풀지 못하면서 비슷한 패턴으로 결정적인 순간 KIA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선발 고인민으로 시작했던 시즌 초반, 최근에는 불펜 고인민으로 시름이 깊다. '나이'로 따져도 '타고투저'다. 주축 타자들로 꾸린 라인업에서 1990년생인 안치홍은 유일한 20대이다. 베스트 멤버들의

평균 나이는 33.6세. 반대로 마운드의 평균 나이는 뚝 떨어진다. 1976년생 최고참 임창용이 버티고 있지만 1군 엔트리에 등록된 14명의 투수 평균 나이는 29세다. 1996년생 막내 전상현부터 1991년생 임기준·황인준까지 8명이 20대 선수들이다. 이 중에서도 92·93라인은 젊은 마운드의 핵심이다. '92동기'는 문경찬과 함께 빠른 93인 한승혁·이민우까지 3명이다. KIA 전체 선수단 구성을 봐도 홍건희, 이종석, 이준영과 제대를 앞둔 박준표, 군복무 중인 김명찬, 박동민까지 마운

드 에 '92 동기'들의 비중이 높다. 경북고 동기 김운동과 임기영은 '93 듀오'로 지난해 우승을 견인한 KIA 마운드의 두 축이다. KIA는 26일 경기까지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를 거두며 순위 싸움에 불을 붙였다. 살아난 타선의 힘이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반면 3패는 마운드에서 기록했다.

KIA는 지난 19일 삼성 원정에서 9회초 7득점이라는 무서운 힘을 과시하고도 마무리 윤석민의 3실점으로 끝내기패를 기록했다. 23일 대전 마운드에서는 팻단이 만루포에 고개를 숙였고, 26일 수원에서는 임기영이 1회 4실점을 하고 일찍 물러나면서 또 다른 패가 쌓였다. 불안한 마운드의 안정세를 위해 92·93 투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25일 '키 킬러' 면모를 보이며 1군으로 돌아온 한승혁과 기복의 시조를 보내고 있는 임기영은 선발진에서 기싸움을 벌여줘야 한다. 이

두 선발과 함께 문경찬, 이민우는 필조 김운동의 무거운 짐을 덜어줘야 한다. 임창용의 선발 이동, 김세현의 계속된 부진 속 윤석민까지 흔들리면서 김운동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김운동은 KIA 투수 중 가장 많은 57경기에서 나와 71.2이닝을 소화했다. 지난 25일 경기에서도 6-1의 리드 상황에서 6회말 선발 한승혁에 이어 불펜진이 가동됐지만 문경찬과 황인준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김운동이 마운드에 올라야 했다. 방향을 알 수 없는 5강 싸움, 아직 4위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KIA는 살아난 화력에 마운드 힘을 더해 승리를 더해줘야 한다. 92·93라인 선수들의 손끝에 KIA 마운드 그리고 팀 성적이 걸려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손 끝에 걸린 LA 명운

내일 샌프란시스코전 등판...0.5게임차 지구 2위 3연전 이겨야 1위 가능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포스트시즌을 치르기도 전에 벌써 세 번째 '빅 게임'에 선발 등판한다. 류현진은 29일 오전 11시 15분(한국시간) 라이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시즌 마지막 3연전의 첫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선다. 다저스는 27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 2-7로 패해 콜로라도 로키스보다 0.5경기 뒤진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로 내려앉았다. 다저스는 28일 쉬고 29~10월 1일 샌프란시스코와의 3연전을 끝으로 정규리그를 마감한다. 콜로라도는 28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격돌하고 29~10월 1일 워싱턴 내셔널스와 마지막 3연전을 치른다. 다저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6년 연속 지구 1위로 포스트시즌에 오르는 것과 와일드카드를 가를 잔치에 오르는 것과는 천양지차다. 콜로라도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다저스는 샌프란시스코와의 3연전을 모두 쓸어담아야 지구 1위를 기대할만한 처지다. 이 중요한 3연전 첫마리에 류현진이 나선다. 다저스는 류현진-클레이튼 커쇼-워커 블러 순서로 선발 투수를 짰다. 샌프란시스코는 매디슨 범가너-데렉 로드리게즈-앤드루 수아레스 순으로 등판한다. 지구 순위 경쟁이 치열해진 이달 중순 이래 류현진은 필승 보충수표로 눈부신 투구를 펼쳤다. 지난 18일 선두 결정전으로 명명된 콜로라도와의 3연전 첫 경기에 등판해 7이닝 동안 4피안타 무실점의 역투로 팀의 8-2 승리에 앞장섰다. 다저스는 이 승리를 발판삼아 3연전을 모두 이기고 지구 선두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섰다.



류현진은 1.5경기 차로 콜로라도에 앞서던 24일에도 샌디에이고 타선을 상대로 6이닝 동안 4피안타 무실점의 뛰어난 투구를 선사해 팀의 14-0 대승에 힘을 보탤다. 류현진은 마지막 고비에서 또 팀을 살리기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류현진은 올해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2경기 등판해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1.54를 올렸다. 정교한 속구 제구로 리그 최고의 투수라는 찬사를 받는 최근의 추세라면 류현진은 호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저스로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 류현진이 다시 한 번 승부사의 기질을 발휘할 시선이 쏠린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인기 시드나

미세먼지·폭염·AG 등 악재에 5년만에 감소...전년보다 25만명 줄어

프로야구 관중이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KBO리그는 전체 일정의 92.5%를 소화한 26일 까지 경기당 평균 1만1073명, 10개 구단 총 관중 737만4743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관중 1만1447명보다 3% 감소했다. 총 관중으로 계산하면 25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현재의 평균 관중이 이어진다면 올 시즌 총 관중은 799만4831명에 이른다. KBO리그는 2016년 총 833만9577명이 입장해 국내 프로스포츠 최초로 800만 관중 시대를 열었고, 지난해에는 840만688명으로 조금 더 증가했으나 올해는 관중 700만 명 대로 후퇴할 조짐이다. 프로야구는 2012년 처음 700만명을 넘어 715만

6157명을 기록했다가 2013년에는 681만28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4년 650만9915명, 2015년 736만530명으로 늘었고 2016년과 2017년에는 800만명을 돌파했다가 올해는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10개 구단은 지난해 총 관중보다 4.6% 늘어난 879만명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전년 대비 관중이 23% 늘어난 한화 이글스와 SK 와이번스, 6% 증가한 삼성 라이온즈 3개 팀만 목표를 달성했고 나머지 7개 팀은 미달했다. 특히 이장석 전 대표가 구단 재산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은 넥센 히어로즈는 관중이 지난해보다도 34%나 빠졌고 KIA 타이거즈 18%, NC 다이노스

17%, 롯데 자이언츠는 11% 감소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시즌 초반인 4월에는 미세먼지로 경기가 취소되는 등 전년 대비 관중이 2.6% 감소했다. 5월에는 1.8% 증가했다가 순위경쟁이 본격화된 6월 들어 8.1% 늘어나며 기대를 부풀렸다. 그러나 7월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관중이 12.0%나 빠졌고 8월에도 7.2% 줄어들었다. 9월 들어서는 지난해보다 관중이 20.9%나 크게 줄면서 800만 관중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KBO 관계자는 올 시즌 관중이 줄어든 배경으로 ▲시즌 초반 미세먼지 ▲한여름 폭염 ▲아시아게임 기간 리그 중단 등을 꼽았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대표팀이 '병역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리그가 18일이나 중단된 팬들의 흥미가 식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9월 관중이 대폭 감소한 것은 '병역 특혜 논란'도 있지만, 두산 베어스가 일찌감치 1위를 확정하는 등 5위를 제외한 포스트시즌 진출팀이 사실상 결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체조도 '팀 코리아'

대한체조협 내달 도하 세계선수권 참가...北과 단일팀 구성 논의

대한체조협회가 10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세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북측 관계자와 만나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북측 체조인들과 코리아킥 체조 대회 참가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협회 관계자들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제48회 국제체조연맹(FIG) 세계선수권대회는

10월 25~11월 3일 열린다.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선 도쿄올림픽 남녀 단체전에 출전하는 국가를 24개국으로 줄인다. 내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선 올림픽 단체전 무대를 밟을 남녀 12개 나라가 결정된다. 탁구, 유도 등 여러 종목이 세계선수권대회를 계기로 남북단일팀 구성에 나선 가운데 육상, 수영과 더불어 기초 종목의 근간을 이루는 체조의 남북단일팀 구성은 큰 상징성을 띤다. 남북 모두 육상과 수영에서 세계와 큰 격차를 보

이지만, 체조에는 세계에서 통할 만한 선수가 많다. 올해 아시안게임 마루운동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우리나라의 김한솔(23·서울시청)과 도마 여왕에 등극한 여서정(16·경기체고), 여자 마루운동 챔피언인 북한의 김수정(18)은 세계적인 기량을 뽐냈다. 우리나라는 남자 마루운동과 도마, 여자 마루운동과 도마에서 강세를 보인다. 북측의 강세 종목은 남자 안마와 도마, 여자 도마와 이단평행봉이다. 남북 체조인들은 자국 소속 선수들로만 단체팀을 꾸려선 올림픽 메달에 근접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공감한다. 결국, 개인 종목에서 메달을 노려야 하는 만큼 남북 체조관계자들은 단일팀을 구성한다면 선수 구성 비율의 이견을 좁히는 쪽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